

하반기 물가 안정된다더니...

7월 소비자물가 얼마나 올랐나

광주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대에 진입했다. 전남은 석 달째 3%대 물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으며, 광주·전남 휘발유 값은 지난달 초 1달 1600원을 넘기며 12주 연속 오름 추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물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물 중심으로 한 고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3.0%·전남 3.2%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2.6%)을 훌쩍 뛰어 넘었다.

광주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12년 1월(광주 3.3%·전남 3.4%)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남은 이미 지난 5월(3.1%) 이후 6월(3.0%)과 지난달(3.2%)에 걸쳐 석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외식물가는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달 광주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3.8% 올랐는

광주 9년6개월만에 3%대 진입...달걀 64%·마늘 61% 급등

외식물가 4개월째 최고 상승...광주·전남 휘발유 12주째 상승

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17개 시도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도 23개월 연속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광주 12.1%·전남 9.6% 오르며, 전국 평균(9.6%) 이상을 기록했다.

호남통계청이 조사를 벌인 농축수산물 73개 가운데 광주는 46개·전남은 49개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농축수산물 품목은 광주·전남 각 27개에 달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달걀 값은 광주 63.9%·전남 40.0% 올랐다.

지난달부터 광주 일부 대형마트에도 미국산 수입 신선란을 들이기 시작했지만 달걀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늘은 광주 60.8%·전남 46.3% 폭등했고, 고춧가루(광주 24.5%·전남 47.6%), 쌀(광주 15.0%·전남 14.7%) 등도 올랐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산 쇠고기(광주 14.7%·전남 7.5%)와 돼지고기(광주 8.2%·전남 10.6%) 값도 상승했다.

사과(광주 59.1%·전남 75.0%), 포도(44.3%·전남 49.3%), 배(광주 46.4%·전남 44.9%) 등 주요 과일 가격도 크게 올랐다.

광주에서는 열무 값이 84.0% 오르고, 감(61.4%), 풋고추(38.6%), 시금치(28.0%), 양배추(24.6%) 가격도 상승했다.

광주·전남 휘발유 값은 석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지역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광주 20.3%·전남 20.2% 올랐다.

광주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달 3월 1달 1600원을 돌파하며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지역도 광주보다 하루 먼저 휘발유 값 160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 중이다.

채광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전남지역 모두 4%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지역 생활물가지수 상승률(광주 4.1%·전남 4.3%)은 지난 2011년 12월(광주 4.8%·전남 4.6%)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60개 품목 중 소비자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식품 가격이 광주 5.8%·전남 4.9% 각각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달걀과 국산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인건비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물가가 지역에서 크게 올랐다"며 "고유가가 잡혀야 추석 전 하반기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폭염 등 기상 이상 현상에 농축어가 피해가 커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는 추석 연휴가 돌아오는 만큼 정부는 향후 선제적으로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계란 가격에 이어 폭염 등으로 채소가격이 상승하는 등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 압력이 크다"며 "모두 민생 직결 사안인 만큼 8월 내내 민생물가 안정에 주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탄소중립 바우처' 모집 연장

광주·전남중기청 20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기간을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모집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더 많은 기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간을 연장했다.

올해 신설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제조 소기업에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을 필수 신청해야 하며, 기술지원 분야는 지원한도 내에서 5개 프로그램 중 희망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기술지원 분야 세부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탄소 저감 관련 설계 등 총 5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발급금액 90%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 50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군산세관 양예리씨 '7월의 으뜸 광주세관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7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군산세관의 양예리(사진 오른쪽)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양 행정관은 코로나19로 방역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업체를 단속, 11억원 상당의 중국산 카메라 1048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또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를 지을 수 있는 잉크나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 형태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태곤 세관장은 "앞으로도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달 선정하고 포상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코로나 의료진 힘내세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지난 2일 여수시청(시장 권오봉)을 찾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 300상자를 전달했다. 1500만원 상당인 이 '응원꾸러미'는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건식식품과 간식, 즉석식품 등 총 17종을 모아 만들었다.

<광주은행 제공>

집관·홈북에...대용량 냉장고·TV 매출 '경풍'

광주 이마트 11일간, 750 l 이상 냉장고 82%·75인치 TV 5배

짧은 장마가 끝나고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역 대형가전 매출이 크게 올랐다.

3일 광주지역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들 점포의 750 l 이상 대용량 냉장고 매출은 1년 전보다 81.7%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750 l 이상 대용량 냉장고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이마트 측은 풀이했다.

지난 해 광주 이마트의 대용량 냉장고 매출이 전년보다 17.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매출은 큰 폭으로 뛰었다.

대용량 냉장고와 함께 문의 한 개 있는 '1도어 냉장고' 매출도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213.3% 뛰었다.

도쿄올림픽을 집에서 즐기는 '집관족'이 늘면서 75인치 대형TV 매출은 지난해보다 5배 증가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냉장고, TV, 세탁기 등 대표 가전들이 집콕 추세에 따라 대형 위주 매출이 늘고 있다"며 "지난달 말부터 폭염이 심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전 트렌드 역시 그에 맞게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트코인 4400만원대 밀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3일 44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3일 오후 2시50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17% 낮은 4463만3000원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전 7시부터 10시께까지 약 3시간 동안 4700만원대 후반에서 4500만원대 후반으로 200만원 가까이 급락했고, 이날 오후 1시50분께 44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4474만2000원이다.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 가격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현재 각 289만3000원, 289만9000원이다. 하루 전보다 2% 이상(빗썸 기준) 떨어졌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37.14 (+14.10)
▼ 코스닥	1036.11 (-1.69)
▲ 금리 (국고채 3년)	1.442 (+0.007)
▼ 환율 (USD)	1148.30 (-2.6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주 치**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적용 가능합니다.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573-4150

문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악로 315번길1)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북구 첨단신로 9번길2-2)

576-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탁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